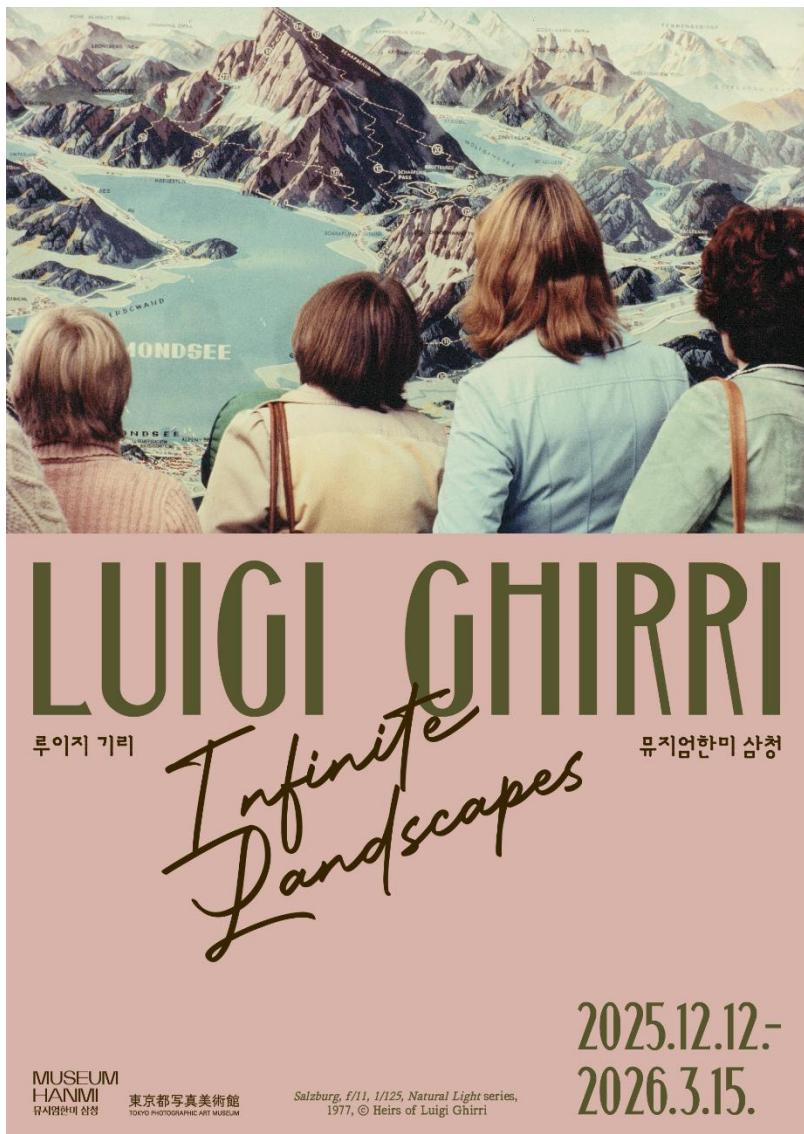


뮤지엄한미 삼청본관 기획전

루이지 기리, 《Infinite Landscapes》 개최

2025. 12. 12. (금) ~ 2026. 03. 15. (일)



- 이탈리아 컬러사진의 선구자 루이지 기리, 국내 첫 회고전 개최
-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맞아, 이탈리아 대표 사진가 루이지 기리의 작업 세계 전반 선보여
- 익숙한 장면을 새로운 시선으로... 전시장에서 만나는 루이지 기리의 '사진 수업'

전시 소개

- 뮤지엄한미(관장 송영숙)는 이탈리아 컬러사진의 선구자 **루이지 기리(1943-1992)** 회고전 『Infinite Landscapes』를 오는 2025년 12월 12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삼청본관에서 개최한다.
- 이번 전시는 주한이탈리아대사관과 함께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 주년을 기념해 마련되었으며, 도쿄도사진미술관이 기획한 전시를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국내 관람객에게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사진가 루이지 기리의 작업 세계 전반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다.
- 루이지 기리는 이탈리아 북부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 출신의 사진가로, 이 지역의 일상적 풍경을 출발점으로 독자적인 사진 세계를 구축했다. 그의 사진은 정제된 색채와 관습에 얹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구도, 인간적인 유머와 시적 통찰이 스며든 시선으로 일상의 시각적 아이러니와 환영적 이미지를 포착한다. 이러한 기리의 독창적 이미지 세계는 미국 중심의 현대사진 담론이 우세하던 시기에 유럽 사진의 새로운 미학을 제시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며, 그를 유럽 컬러사진의 '시인'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 루이지 기리는 국내에선 도서 『루이지 기리의 사진 수업』(열화당, 2020)으로 처음 소개되었다. 사진의 본질과 역사, 빛과 렌즈, 프레이밍 등 사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다루는 이 책은, 그가 1989–1990년 이탈리아 프로젝트 대학교에서 진행한 강의를 바탕으로 한다. 기리는 이 강의에서 사진을 배우는 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 '보는 방식'을 강조하며, 익숙한 시각적 습관에 매몰된 현대인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풍경을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풍경에 속하게 되는 감각을 느낀다"고 말하며 익숙함이 만들어내는 관성적 시선을 경계하고 일상의 장면을 새롭게 바라보는 감각을 제안했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기리의 '보는 방식'에 대한 탐구를 다양한 작품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진 수업'으로 자리한다.
- 기리는 1970년대 개념미술 작가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사진 작업을 시작했다.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는 사진을 단순한 재현의 도구가 아니라, 프레임 안의 시각적 요소들을 통해 현실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사유의 도구'로 이해하게 되었다. 기리는 눈앞의 장면을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드러내는 하나의 이미지로 보았으며, 이를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으로 자신만의 사진 세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일상 풍경 속에서 현실과 이미지의 관계를 꾸준히 탐구하며, 존재와 부재, 외적 세계와 내적 세계를 넘나드는 사진적 철학을 발전시켰다. 이번 전시는 1970년대부터 말년까지 기리가 이탈리아 풍경, 공업지대의 스튜디오와 자택 내부, 미술관, 간판과 포스터 등 일상적 공간에서 포착한 다양한 장면들을 통해 그의 사유와 실험을 폭넓게 살펴본다.
- 전시는 총 다섯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섹션 '사물과 이미지 1'에서는 〈Photographs

from my Early Years〉와 〈Kodachrome〉 연작을 소개한다. 이 두 시리즈는 일상 속 사물에 부여된 익숙한 의미와 위계를 비틀며,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두 번째 섹션 ‘사물과 이미지 2’에서는 〈f/11, 1/125, Natural Light〉와 〈Still Life〉 연작을 통해 관찰 행위의 구조와 이미지 안 요소들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어지는 ‘이탈리아 풍경 1’과 ‘이탈리아 풍경 2’는 기리가 이탈리아 남부와 북부를 오가며 작업한 〈Italian Landscape〉 연작을 소개하며, 장소 인식과 익숙함·낯섦 사이의 경계를 다룬다. 특히, 이 섹션 안에는 기리의 작업을 함께 관찰하며 여정을 동행한 동료이자 파트너 파올라 보르곤조니의 작품과 아카이브를 소개하는 별도 공간이 마련되어, 두 사람의 관계와 그 영향력을 함께 보여준다. 마지막 ‘스튜디오 풍경’에서는 기리의 집 내부를 촬영한 〈Identikit〉 연작과 함께, 건축가 알도 로시와 화가 조르조 모란디의 스튜디오를 담은 작업을 소개한다. 기리는 집 안의 책과 음반 같은 일상 사물을 통해 부재하는 인물을 암시하는 초상을 구성했으며, 실내와 외부의 경계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시각적 요소들을 통해 평생 탐구해온 ‘보는 행위’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 뮤지엄한미 김선영 학예연구관은 “이번 전시는 약 20년에 걸친 기리의 사진적 사유의 여정을 되돌 볼 수 있는 자리”라며, “이를 통해 관람객이 일상 곳곳에 숨어 있는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전시 기간 중에는 다양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시 개막 주간에는 도쿄도사진미술관에서 루이지 기리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 야마다 유리를 초청하여 전시 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기리의 작품 세계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볼 수 있는 큐레이터 토크를 진행한다. 이후 전시와 연계된 주제로 구성한 심포지엄을 비롯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미술관 홈페이지(<https://museumhanm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큐레이터 토크

루이지 기리 재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약 2년에 걸친 연구를 진행하며 전시를 기획한 도쿄도사진미술관 큐레이터 야마다 유리가 루이지 기리의 작업 세계와 전시 기획 과정을 나눈다. 대담은 뮤지엄한미 김선영 학예연구관이 모더레이터로 진행하며, 사진 매체를 바라보는 기리의 독창적 관점과 작품에 담긴 철학적 의미, 그리고 자료 조사와 전시 구성 과정에서 발견한 다양한 논점들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이 루이지 기리의 세계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참여 큐레이터: 야마다 유리(도쿄도사진미술관 큐레이터)

모더레이터: 김선영(뮤지엄한미 학예연구관)

일시: 12월 13일(토) 오전 11시

장소: 뮤지엄한미 삼청본관 2층

인원: 50명

비용: 15,000원(전시관람료 포함)



야마다 유리

도쿄도사진미술관의 큐레이터로 재직중이며, 미술사를 전공하고 이후 근현대 사진사를 연구한다. 『Infinite Landscapes』(2025)를 비롯해 다양한 전시를 기획했다. 현재 메이지카쿠인대학에서 의 강의 및 다양한 사진 관련 공모전 심사위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홍보용 이미지 목록

No.	작품 이미지	캡션 및 상세정보
1		<i>Grostè Refuge, Italian Landscape series, 1983,</i> C-print, 21.5×35cm, © Heirs of Luigi Ghirri
2		<i>Salzburg, f/11, 1/125, Natural Light series, 1977,</i> C-print, 24×35.5cm, © Heirs of Luigi Ghirri
3		<i>Modena, Kodachrome series, 1973, C-print,</i> 20×14cm, © Heirs of Luigi Ghirri
4		<i>Formigine, The Outline of Clouds series, 1982,</i> C-print, 24.2×36cm © Heirs of Luigi Ghirri
5		<i>Engelberg, Kodachrome series, 1972, C-print,</i> 21.8×14cm, © Heirs of Luigi Ghirri

6		<p><i>Bologna, f/11, 1/125, Natural Light series, 1973,</i> <i>C-print, 23.8×34.8cm, © Heirs of Luigi Ghirri</i></p>
7		<p><i>Modena, Still Life series, 1978, C-print, 22×15cm,</i> <i>© Heirs of Luigi Ghirri</i></p>
8		<p><i>Modena, Still Life series, 1978, C-print, 36×24.6cm,</i> <i>© Heirs of Luigi Ghirri</i></p>
9		<p><i>Ile Rousse, Kodachrome series, 1976, C-print,</i> <i>17×27cm, © Heirs of Luigi Ghirri</i></p>
10		<p><i>Bologna, Studio of Giorgio Morandi series,</i> <i>1989-1990, C-print, 19.5×24.2cm,</i> <i>© Heirs of Luigi Ghirri</i></p>
이미지 요청 및 문의 김소정 02-733-1315 press@museumhanmi.or.kr	보도자료 및 홍보용 이미지 웹하드 다운로드 <u>www.webhard.co.kr</u> ID: hanmimuseum / PW: 1315 게스트 폴더 > '내리기 전용' > 루이지 기리전	

전시 개요

전시제목 : 루이지 기리, 《Infinite Landscapes》

전시기간 : 2025년 12월 12일(금) ~ 2026년 3월 15일(일)

전시장소 : 뮤지엄한미 삼청본관(서울시 종로구 삼청로9길 45)

전시작품 : 작품 130여 점

주최 : 뮤지엄한미

공동주관 : 도쿄도사진미술관, 뮤지엄한미

기획 : 도쿄도사진미술관, 뮤지엄한미

후원 : 루이지 기리 재단, 주한이탈리아대사관, 주한이탈리아문화원

(재)가현문화재단,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관람시간 : 화-일 10:00 ~18:00(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료 :

일반 요금 (본관, 별관 통합권 운영)

구분	기준	요금
성인	만 18 세 이상~ 65 세 미만	15,000 원
학생	초·중·고(만 7 세 이상~ 18 세 미만)	7,500 원
경로	만 65 세 이상	7,500 원
종로구민·재직자·재학생	종로구 거주자, 종로구 소재 학교 학생 및 직장인 (주소 증빙서류 지참)	7,500 원

무료 관람 대상

- ◆ 미취학 아동(만 7 세 미만)
- ◆ 국가유공자
- ◆ 복지카드 소지자
- ◆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단체 할인

- ◆ 성인 10인 이상 단체일 경우 1인당 1,000 원 할인
- ◆ 중복할인 불가

문의 : 뮤지엄한미 삼청본관 대표전화 02-733-1315, museum@museumhanmi.or.kr